

**전일동향**

전일대비 2.10원 하락한 1,504.2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10원 하락한 1,504.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상승한 1,508.7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국이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하락하며 1,504.2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9.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2.14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08.70	1512.60	1502.80	1504.20	1506.80
	엔화	943.16	945.76	935.08	942.14	-
	유로화	1738.36	1745.53	1728.45	1743.89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8	-4.44	-9.59	-17.85
	결제환율(수입)	-0.68	-3.01	-7.32	-14.2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이란 중재안 수용에...1,49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04.20) 대비 7.70원 하락한 1,495.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긴장 완화 및 달러 약세에 하락 전망한다. 간밤 최초 트럼프가 정한 협상 기한(한국시간 기준 8일 오전 9시)이 가까워지며 중동지역 긴장감이 고조되자 WTI 국제유가가 배럴당 117달러까지 치솟았으나, 파키스탄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 2주 연장안을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수용(한국시간 기준 8일 오전 7시 32분)하며 막판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었다. 비록 종전 요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극단적 충돌은 모면했다는 안도감이 확산되며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와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힘입어 위험통화인 원화 강세 분위기에 금일 달러/원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내증시에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까지 가세할 경우 수급적으로 환율 하방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1,500원 초중반에서 적극적인 매도 대응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출업체의 추격매도 등도 낙폭 확대에 일조할 전망이다. 다만, 저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 등 대기 매수세는 하락 폭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86.40 ~ 1499.40 원</b>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703.7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70원 ↓
	■ 美 다우지수 : 46584.46, -85.42p(-0.1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45.7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99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